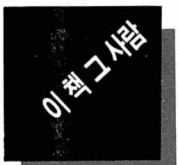




## 다양한 삶의 편린 담은 에세이집 정치·사회현안 따끔하게 꼬집기도

— 「여성수첩」 펴낸 손숙씨



누구에게나 너무나 강렬하여 쉽게 지워지지 않는 인상이 있네 마련이다. 연극배우 손숙(48)씨를 떠올리면

로르카의 「베르나르다 알바의 집」에 나오는 육십노파, 무덤속에서나 들러붙은 거친 숨소리와 낮게 웅얼거려던 목소리, 아서 밀러의 「시련」에서 교수대로 끌려가는 남편을 붙들고 회한에 울던 엘리자베드의 이미지를 잊을 수가 없다. 그것은 극단 산울림의 창단멤버였음에도 국립극단단원으로 더 기억되고 현대물보다는 전통적인 고전극이, 희극보다는 비극이 훨씬 더 적합하다고 고집하고픈 이유가 되게 한다.

수의처럼 검고 치렁치렁한 의상을 벗기고 밀랍으로 만든 마녀와 같이 쾅한 분장을 지워 그를 무대에서 내리면, 거기에는 영락없는 이웃집 아줌마의 '수다'가 있고, 문학소녀적의 열병 흔적이 아직도 드문드문 남아 있는 초로의 중년이다. 그런데 그의 수다에는 동년의 그것과는 남다른 데가 있다. 그것은 어치구니없는 세상사를 보고 터뜨리는 참을 수 없는 분노이거나, 소외받는 이웃, 고통당하는 여성, 고립된 장애자들의 문제에 기울이는 애끓는 눈길의 '수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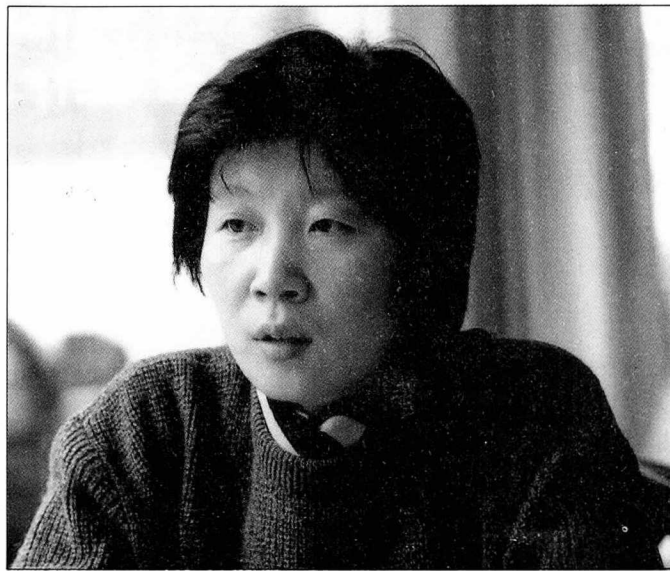
최근 그는 신문이나 잡지에 기고했던 정치칼럼들과, MBC 여성시대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갖가지의 에피소드, 그리고 자신의 '무대' 인생을 되돌아보며 한장씩 써두었던 글을 모아 「여성수첩」(전원)을 펴냈다. 그에게는 지난해 동료 연극배우 박정자, 윤소정, 윤석화와 함께 묶었던 「무엇이 이토록 나를」에 이은 두번째 책인 셈이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시장이라도 가면

못사람들이 한번쯤은 다시 쳐다보고서야 지나쳤을 만큼 절색이어서 어린 그를 몹시도 우쭐하게 했던, 하지만 남편복만큼은 지지리도 없었던 그 어머니에 대한 연민같은 그리움, 대학신입생이던 63년 봄날 반강제이다시피 어떤 남학생이 이끌려간 극회실에서 졸지에 여주인공역을 떠안게 되었던 '무대'와의 첫만남, 당시로서는 이름을 날리던 현역배우이자 나이도 아홉살이나 많은 극회선배와의 주위의 반대를 무릅쓴 결혼, 이후 직업배우가 되어서는 행여나 고향 '밀양'의 역센 경상도사투리가 튀어나올까봐 억양과 발성연습에 남모를 눈물을 쏟았던 초년병시절... 오직 미지의 세계로 떠날 수 있다는 동경 때문에 '버스차장'이 되고 싶었던 한 여자아이가 40대 후반의 중견배우가 되어 비로소 털어놓는 진솔한 고백들은 무대위의 그의 모습과는 너무나 판이하여 오히려 가슴뭉클하지만, 정작 이 책이 목격한 질량을 가지는 것은 20여년을 무대위에서 보낸 현역배우가 우리의 연극현실에 띄우는 빠이픈 충고와 정치·사회·교육현안을 독특한 시각에서 분석하고 특유의 말씨로 꼬집는 뒷부분의 글이다.

“문학동네는 내겐 언제나 동경의 세계여서 신문사나 잡지사의 원고청탁을 거절 못한 것이 이러한 잡문들로 모이게 되었다”고 그는 겸손해 하지만 읽는 욕심, 쓰는 욕심,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연극만큼이나 강렬해 신문을 읽다 눈에 띄는 신간은 반드시 사서 최소한 군데군데라도 읽고 마는 습관적인 독서광이기도 하다.

— 정혜옥 기자



## 책속으로 떠나는 풍성한 문학여행 대화체 서술로 독자와의 거리 좁혀

— 「보름간의 문학여행」 펴낸 엄혜숙씨



입시위주 교육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제기된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적자생존의

원칙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은 학교나 사회나 마찬가지여서, 청소년 독서교육의 한계는 생각보다 훨씬 분명하게 다가온다. 여기에 '활자'보다는 '영상'에 익숙한 그들 세대 놀이문화의 특성이 더해져 교과서 이외의 책읽기로 그들을 유도하는 일은 쉽지 않다.

「보름간의 문학여행」(동녘)은 제목이 주는 느낌대로라면 한시적인 문학책 읽기의 여록쯤으로 비취질 수도 있지만, 곧 세심한 구성 아래 문학작품의 핵심을 짚어가는 책읽기의 유용한 안내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전에 마광수씨의 작품들과 여러 수필집 등 인기작가·작품에 신랄한 비판을 가한 책 「베스트셀러」의 공동집필자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던 엄혜숙씨(웅진문화 편집부, 30)가 올바른 책읽기의 연장선상에서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펴낸 이 책은, 무엇보다도 자연스럽게 책과 독자를 연결시켜주는 독특한 구성이 돋보인다.

「어린왕자」 「좁은 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갈매기의 꿈」 등 낯익은 목록의 외국 소설 15편을 작가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비롯해 당시의 시대배경 등을 적절히 내용과 연관시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줄거리 요약이나 독후감이 아닌 “짧지만 풍성한 문학여행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수록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주위의 도움을 얻어 설문조사까지 한 그는 이 책이 중·

고등학생은 물론 고졸 사무직 여성과 주부에게까지도 읽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의 책이 “좋은 책이라기보다는 책읽기와 감상에 대한 하나의 제안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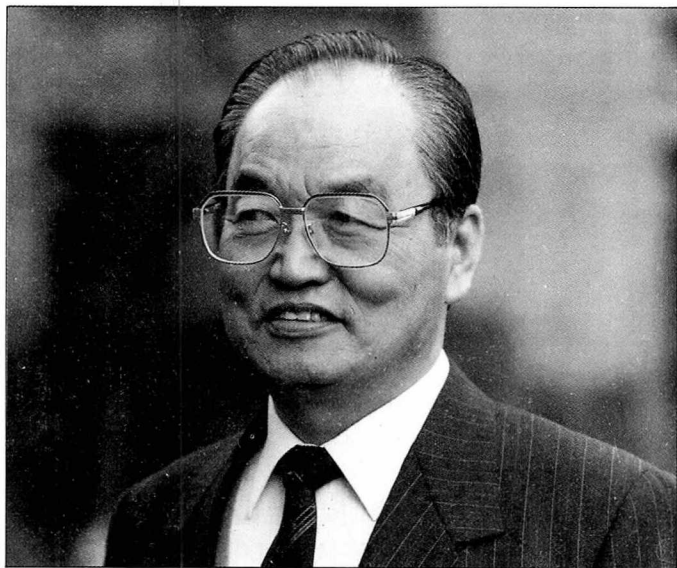
아동도서를 제외하면 아직도 낮설게 느껴지는 대화체를 굳이 고집한 것은 “책이라면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한 사람에게 의해 쓰여지는 게 보통이지만, 원래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함께 문학작품을 이야기하고 생각해보자는 의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라고 밝히는 그는 그러나, 가상의 독자를 상정하고 글을 쓴다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한다.

개인적으로는 진작부터 갖고 있던 문학에 대한 관심을 이제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는 셈이 되는데, 우연한 기회에 라디오 책소개 프로그램의 방송원고를 쓰게 되고 계속 출판 일을 하면서 부쩍 독서안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고 한다.

출간준비로 바빴던 지난 6개월 동안 예전에 읽었던 작품들을 다시 읽어보니 새삼스런 느낌이 들더라는 그는, 각 작품이 출간배경은 다를지라도 당대의 시대상과 사회상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고 한다. 그리고 책 전체를 통해 바로 이 점을 독자들에게 전달해 문학의 본질을 이해시킬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책이란 특별한 사람이 쓰는 것이라는 통념도 깨고 싶었다”는 그는 현재 틈틈이 자기유고가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이번 책과 짝을 이루는 국내작품선집을 준비해볼 생각이다.

— 정소연 기자



## 비행기 모든 것 담은 대중용 교양서 광범한 내용에 자료사진 충실히 수록

—「...비행기 이야기」 펴낸 임달연씨



새털을 모아 큰 날개를 만들어 하늘을 날다가 바다에 떨어져 죽고만 '이카루스'의 비극은 이제 없다. 1903년

라이트 형제가 인류 최초로 동력비행에 성공한 이후 현실화된 '새처럼 날기'의 열망은, 그때부터 여든여덟해가 지난 이제 한꺼번에 수백명의 사람을 태우고 세계 도처로 향해 나 있는 하늘길을 초음속으로 운항하는 제트여객기의 등장으로 여타의 교통수단에 의한 여행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일상적인 것이 되었다. 비행기 산업의 발전에 힘입은 이러한 '하늘날기'의 대중화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자체의 원리나 발전과정 등에 대한 일반인의 상식은 지극히 알파하다.

임달연교수(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63)는 이러한 현상을 단순히 문명의 이기를 이용만 할 줄 알았지 그 내막을 들여다보기는 귀찮아 하는 요즈음 사람들의 책임만으로 돌리지는 않는다.

“세계 10위의 항공운수율, 세계 제일의 정시율을 기록할 만큼 국내 항공산업이 발전했고, 항공산업 종사자의 꿈을 키우는 학생과 항공레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는 등 항공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부응할 만한 지식을 전달해 주기 위한 노력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항공관계자들의 책임이 큼니다.”

그가 최근에 펴낸 「알기 쉽고 재미있는 비행기 이야기」(고려원)는 그 책임을 먼저 짚어지려는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국내 유일의 항공분야 대중서이다.

날개 단 천사, 구름 타고 다니는 신선, 비룡 설화 등 하늘을 날고 싶다는 인간의 꿈을 담은

신화와 전설로 첫 장을 여는 이 책은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원리, 비행기 발전의 역사, 최신 비행기의 면모와 특징, 비행기의 운항과 관련된 세부사항, 그리고 최근 각광받고 있는 항공레저스포츠까지 비행기에 관한 모든 것을 소상하게 알려준다.

무수한 발명가들이 만든 '날들'과 지면에 와서는 우스꽝스럽기까지 한 많은 공상가들의 날기 위한 모험들이 흥미롭게 읽히는가 하면, 히틀러를 매료시킨 전투기 '바다제비', 일본을 행복시킨 폭격기 'B-29' 등 전쟁이 낳은 고성능 비행기들의 이야기는 비행기 발전의 역사와 전쟁과의 상관관계를 살피는 계기를 제공한다.

‘항공분야에 대한 관심의 저변 확대’라는 이 책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저자가 기울인 노력은 광범위한 내용 외에도 다양한 사진 및 그림을 곁들여 이해를 쉽게 하는 한편 경어체를 사용하여 친근감을 주고자 한 것을 들 수 있다.

“항공과학기술은 최신의 첨단과학이 종합된 것이며 타 산업에 미치는 기술파급효과 또한 막대하여 한 나라의 기술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국내 항공과학이 황무지나 다름없던 50년대에 “그저 비행기가 좋아서” 항공학과 인연을 맺었던 그는 그동안 항공고등학교장, 인하전문대학장 등을 역임하며 후진양성에 힘을 쏟아왔다. 얼마전 이러한 중책에서 ‘해방’되어 여유가 생겼다는 그는 남은 시간들을 일반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항공관계 책들을 쓰는 데 바칠 계획이다.

—박남정 기자



## 색으로 소비자 자극하는 판매전략서 기획단계서 실제 사례연구까지 다뤄

—「감성시대의 칼라마케팅」 펴낸 김훈철씨



“과거의 소비자들이 기능과 양을 따져 제품 선택을 했다면 지금의 소비패턴에서 더없이 강조되는 것은

감성입니다. 다시말해 정보나 이미지에 대한 감수성이 구매의욕을 자극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 점을 감안한 현대적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감성시대의 칼라마케팅」(장영렬 공저, 사민서각)의 저자 김훈철씨(37)는 “그러나 우리 기업들이 무관심하다”면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도 가시적 마케팅인 칼라마케팅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마케팅을 선전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힌다. 더욱이 실질적인 조사 없이 행해지는 감각적이고 피상적인 기존의 개념에서 벗어난 체계적인 마케팅을 소개하려는 의도도 겹쳐서였다.

80년대로 들어서면서 비로소 인식의 폭이 넓어진 마케팅에 대한 일반적인 인지도는 아직도 수준미달. 그러나 최근들어 소비자들이 기능우선 세대에서 감성절대 세대로 뒤바뀌고, 대량생산이 다종 소량생산으로 변화되면서 ‘장시수완’이 아닌 계획적인 마케팅은 필수조건이 아닐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를 정확하게 추정한 다음 그들의 색채심리를 파악해 제품 판매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바로 이 책.

일본에서는 색채전략이란 용어로 지칭되는 칼라마케팅은 특히 60년 이후 출생한 속칭 신세대들이 주요 소비자로 등장한 시장구조 속에서 귀중한 전략이 된다. 김훈철씨는 이들 신세대들이 TV등장으로 인한 시각세대, 풍요·개방·실용·고학력 세대라고

규정하면서 지금의 시장을 파악하려면 이들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 책은 원론적인 「감성시대의 마케팅 어떻게 할 것인가」를 비롯해 모두 아홉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색상을 인간심리 차원에서 분류한 일본 칼라 디자인연구소의 자료 ‘칼라 이미지 스케일’도 소개했다. 한편 상품의 이미지 기획단계부터 소비자 심리파악 등에 이르기까지 칼라마케팅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일본의 가전·자동차·식음료·화장품 업계 등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도 실고 있어 우리 업계의 실정을 반추해 보게끔 한다.

색채에 대한 전문적인 접근이 어려워서 조언을 받는 수고도 있었지만 우리 시장을 분석한 연구서가 아닌 것이 끝내 아쉽다고 말하는 김훈철씨는, 미국과 일본의 것을 뒤따르기보다는 한국시장에 알맞은 독자적인 전략개발이 시급하다고 덧붙인다. 그의 지적은 전면적인 시장개방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다.

경영학에서 마케팅·광고로 영역을 옮기며 활동하고 있는 그는, 실천과 이론을 두루 겸한 전문가로서 현재 마케팅과 광고의 기획 그리고 자문을 주업무로 하는 M&A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틈틈이 관련단체나 기업체를 돌며 강의도 하고 있다.

“일에 미쳐 사는 편이죠. 일거리를 끊임없이 찾아내고자 하는데, 내년쯤엔 장삿속으로가 아니라 제 일을 좀더 심화시키고 발전시킬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마케팅과 광고에 관한 전문서적만을 취급하는 조그만 출판사를 낼 계획도 있습니다.”

—최태원 기자